발 행 인 질병관리청
발 행 일 2020년 12월
집 필(개 발) (사)한국천식알레르기협회
자문 및 감수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대한피부과학회
디자인 · 인쇄 (주)플라잉피그(032-270-6543)
문 의 질병관리청(043-719-7442)
(사)한국천식알레르기협회(02-745-4510)

이 책은 질병관리청에 저작재산권이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의 승인 없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판매될 수 없으며, 이 책의 내용을 무단 전재하는 것을 금합니다.
자료를 인용할 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유아용

전래동화 '젊어지는 샘물' 각색 연극

피부가 좋아지는 샘물



질병관리청

피부가 좋아지는 샘물 연극 지침서 [어린이집, 유치원용]

대본 명	피부가 좋아지는 샘물	
학습 주제	아토피피부염의 예방과 치료	
학습 목표	아토피피부염에 대하여 이해하고 예방과 치료법을 실천할 수 있다.	
준비 자료	대본, 설명을 돕기 위한 옹달샘 사진, 동화구연 캐릭터 머리띠	
단계	이야기 전개에 따른 구연 방향	전개 활동에 대한 지침
도입	**1막: '당무의 변신과 로이의 소원'** · 1장: 주인공 로이는 자신과 같이 아토피 피부염을 앓던 친구 당무에게 피부가 좋아지는 샘물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	**사전 활동을 전개하여 주세요.** · 전래동화 '젊어지는 샘물'을 각색한 연극입니다. 기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주며 유아들이 흥미를 갖도록 지도하여 주세요. · 구연동화나 역할극 시에 로이의 행동들은 최대한 유아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연기하여 주세요.
전개	**2막: '피부가 좋아지는 옹달샘'** · 1장: 당무의 도움으로 옹달샘을 발견한 로이는 피부가 좋아지기 위해 옹달샘에서 목욕을 한다. · 2장: 옹달샘에서 목욕한 이후 피부가 좋아진 로이는 당무보다 피부가 더 좋아지고 싶다는 욕심이 생긴다.	**본 활동을 전개하여 주세요.** · '피부가 좋아지는 옹달샘'은 가상으로 설정한 공간입니다. 질문을 통해 옹달샘에 대한 유아들의 호기심을 자극해주세요. 예) "피부가 좋아지는 옹달샘에 대해 들어 본 적이 있나요?" "옹달샘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 당무보다 피부가 좋아지고 싶다는 욕심을 갖게 된 로이의 심리를 유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 주세요.
마무리	**3막: '샘물 신령님과 옹달샘의 비밀'** · 1장: 옹달샘에 몸을 담군 채로 잠이 든 로이는 아토피피부염이 다시 심해지고, 신령님을 만나 아토피피부염이 좋아지는 방법에 대해 듣는다. · 2장: 당무에게 피부가 좋아진 이유는 샘물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매일 목욕한 덕분이라는 것을 알려준 로이는 당무와 함께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부가 좋아지는 방법에 대해 알리기 위해 떠난다.	**마무리 활동을 전개하여 주세요.** · 유아들에게 피부가 좋아지는 샘물은 어떻게 되었을지 질문하며 대답을 유도하세요. 예) "피부를 좋아지게 하는 방법은 아토피 피부염 예방 수칙을 꾸준히 잘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샘물에는 더 이상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 대답을 유도한 후 아토피피부염에 대해 자유롭게 대화해도 좋습니다.

등장인물



로이 아토피피부염을 고치고 싶어 하는 욕심 많은 인물. 자신의 욕심으로 아토피피부염이 심해지자 욕심을 버리게 된다.



소미 로이의 친구. 로이에게 당무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알려준다.



당무 아토피피부염으로 빨갛게 된 얼굴 때문에 홍당무라고 불리는 인물. 특별한 옹달샘 때문에 아토피피부염이 나아졌다고 믿고 있다.



샘물 신령 옹달샘의 신령. 옹달샘 앞에서 울고 있는 로이 앞에 나타나 옹달샘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고 아토피피부염 관리 방법을 알려주는 인물.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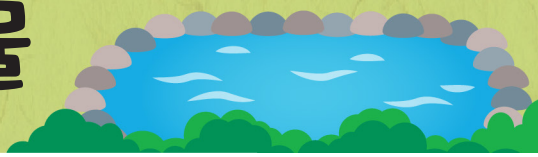
1막
당무의 변신과 로이의 소원
1장 당무의 비밀

2막
피부가 좋아지는 옹달샘
1장 소문의 옹달샘을 찾아
2장 옹달샘 발견하다

3막
샘물 신령님과 옹달샘의 비밀
1장 샘물 신령님이 말하는 진실
2장 로이, 당무와 오해를 풀다

부록
캐릭터 머리띠

피부가 좋아지는 샘물



줄거리

어느 날, 로이는 소미에게 아토피피부염으로 홍당무라고 놀림 받던 당무의 피부가 나아졌다는 소문을 듣게 된다. 로이는 피부가 좋아지는 방법을 알려달라며 당무를 찾아가 피부가 좋아지는 옹달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

당무가 알려준 대로 옹달샘에서 하루에 한 번씩 목욕을 한 로이는 자신이 바란 대로 피부가 점점 좋아지게 된다. 하지만 자신보다 훨씬 피부가 좋아진 당무를 보고 로이는 욕심이 생기게 되고, 샘물에 특별한 것이 있다고 생각한 로이는 그날 이후 옹달샘을 하루에 몇 번 씩 찾아가 때를 밀고, 오래오래 목욕을 하며 당무보다 피부가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에 들뜬다.

하지만 그럴수록 로이의 피부는 다시 간지럽고 따가워지기 시작한다. 옹달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로이의 앞에 샘물 신령님이 나타나 로이의 사정을 듣게 된다.
샘물 신령님은 로이에게 이 샘물은 다른 샘물과 다를 것 없다며 아토피피부염의 관리 방법에 대해 알려준다. 로이는 앞으로 욕심을 부리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샘물신령님이 알려준 방법을 지켜 다시 피부가 좋아진다.

한편, 아직도 옹달샘이 특별하다고 믿고 있는 당무는 피부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옹달샘을 소개한다. 로이는 당무에게 피부가 좋아지는 옹달샘에 관한 오해를 풀어주며, 당무를 도와 옹달샘을 소개시켜주는 대신 사람들에게 피부가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기로 한다.

제 1막

#01 어느 깊은 산골 마을 / 낮
땀범벅이 된 로이가 팔꿈치 피부를 벅벅 긁으며 등장한다.



로 이: (손부채질하며) 아이고, 더워라.
(몸을 긁으며) 땀을 흘려서 그런지, 온몸이 너무 가려워!!

(그때, 소미가 로이에게 인사를 하며 등장한다.)



소 미: (손 흔들며) 오랜만이야! 어디 갔다 오는 거야?
요새 마을에서 잘 보이지 않던데.



로 이: 가족들이랑 고개 너머에 사는 사촌 집에 다녀왔거든!
사흘을 꼬박 걸어 다녀오는 길이야.

(소미가 로이에게서 한 발자국 물러나 코를 막는다.)



소 미: (코를 막으며) 으.. 냄새. 어서 집에 가서 씻지 않고..



로 이: (어깨 으쓱하며) 이대로 사흘은 거뜬해!
(주변을 둘러보며) 그런데 마을이 시끌벅적하던데,
무슨 일이라도 있어?



소 미: (손뼉을 치며) 아 참!
네가 없는 동안 신기한 일이 하나 있었지.



로 이: (어리둥절하게) 무슨 일인데?



소 미: 너처럼 피부가 울긋불긋하고 간지러워 어쩔 줄 몰라 하던
당무 알지?



로 이: 알지, 알지.
볼이 홍당무처럼 빨개서 홍당무라고 불리는 아이 말이야?
그런데 당무가 왜?



소 미: 글쎄, 어느 날부터 당무 피부가 달걀처럼 매끈매끈해졌다니까?
빨갰던 볼도 우유처럼 뽀얗게 변하고 말이야.



로 이: 에이~ 거짓말~!



소 미: 안 믿기지?
하긴, 나도 내 눈으로 보기 전까지 믿지 못했으니까.



로 이: 그게 정말이야?...
도대체 어떻게 고쳤다는데?



소 미: (턱에 손을 갖다 대며) 음... 어떤 옹달샘에 갔다던데...



로 이: 옹달샘...?

(그때, 당무가 무대로 등장한다.)



당 무: (반갑게) 어? 로이야! 정말 오랜만이다~

(놀란 눈으로 당무를 이리저리 번갈아 보는 로이)



로 이: 어..어?! 이럴 수가...
(자기 볼을 꼬집으며) 이게 꿈이야 생시야.



당 무: 하하하. 꿈이 아니야!



소 미: (덩달아 흥분해서) 내 말이 맞지?



로 이: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나한테도 좀 알려줘!
(팔을 긁으며) 난 요즘 가만히 있어도 자꾸 피부가 간지러워서
아무것도 못하겠다구.



당 무: (뜸 들이며) 그게...
얼마 전에 새를 잡으러 가다가 깊은 산 속까지 가게 됐는데,
아주 맑은 옹달샘 하나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새도 잡을 겸 매일 그곳을 찾아 목욕을 했더니
이렇게 피부가 좋아졌다니까?



소 미: (흥분하며) 피부가 좋아지는 옹달샘이구나?



로 이: (걱정) 난 매일 목욕한 적이 없는데...



당 무: 매일 목욕을 해야 효과가 나타난다구!
이젠 하루라도 목욕을 빼먹으면 피부가 다시 빨개질 것 같다니까?



로 이: (고개 끄덕이며) 그래, 피부가 좋아질 수 있다면!
내가 큰 도움을 받았어. 고마워! 정말!



당 무: 친구 사이에 뭘~



소 미: (로이를 보며) 너도 당무처럼 피부가 좋아질 거야!

제 2막

#01 깊은 산 속 / 낮
나뭇가지로 땅을 짚으며 등장하는 로이



로 이: (옹달샘 가리키며) 저게 당무가 말한 옹달샘인가?!!
어~ 근데 내가 봤던 물하고 똑같아 보이는데...
(팔짱 끼며 의심스러운 눈빛을 하는) 혹시 나한테 장난치려고
엉뚱한 곳을 알려준 건 아니겠지...?
흐음... 그래도 왔으니 목욕이나 해볼까?

(로이가 옹달샘 안으로 들어가 몸을 푹 담근다.)



로 이: 우아~ 오랜만에 목욕하니까 시원하다~!
몸도 좀 덜 간지러운 것 같고 말이야.
그런데 이 옹달샘은 물이 차갑지 않고 미지근하네?
(화색 돌며) 역시 이렇게 다른 걸 보니
특별한 옹달샘인 게틀림없어!!
좋았어! 이제 매일 여기 와서 목욕을 해보는 거야!
(로이가 샘물을 몸에 뿌린다.) 히히히. 피부야 좋아져라~!

#02 마을 거리 / 낮
소미가 거리 한가운데 로이를 두고 빙글빙글 돈다.



소 미: (로이 주위를 빙글빙글 돌다 멈추며) 이게 무슨 일이야!
피부가 몰라보게 좋아졌잖아?



로 이: (자신만만하게) 어때? 많이 좋아졌지?
사실 당무의 말을 따라 했더니 어느 순간 피부가 좋아지지 뭐야?
이제 가렵지도, 따갑지도 않다니까?



소 미: 오~ 그 소문이 진짜였나 보네~!



로 이: 응! 정말 특별한 샘물이었어!
(팔에 남아있는 흉터 만지며) 아직 다 좋아지진 않았지만...

(그때, 당무가 로이와 소미 앞으로 등장한다.)



당 무: (인사하며) 안녕? 다들 여기 모여 있었네?

(로이가 당무에게 달려간다.)



로 이: (당무의 손을 잡으며) 당무야! 네 말처럼
매일 그 옹달샘에서 목욕을 했더니
피부가 이렇게 좋아졌지 뭐야. 하하하



당 무: 그거 정말 잘 됐다~!
역시 그 옹달샘은 특별하다니까?



로 이: (당무의 아토피피부염 흔적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매끈한 피부 유심히 보며) 그런데.. 네 피부는 더 좋아졌네.
피부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 같아.



당 무: (쑥스럽게 웃으며) 후훗. 그런가?
사실 피부 때문에 홍당무라고 놀림 받을 때마다
마음이 속상했었어...
그런데 이제 홍당무라고 놀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 좋아!



소 미: 그런 줄도 모르고... 미안해, 당무야.
이제부터는 놀리지 않을게.



로 이: (미안해 하는 표정으로) 나도 몰랐어...



당 무: 애들아, 난 정말 괜찮아!
그런데 아무래도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가?
잠을 잘 잤더니 피부가 더 좋아진 것 같아.



소 미: 정말 다행이다!



당 무: 난 먼저 가봐야겠어. 장에 가던 길이었거든.



소 미: (소미가 당무를 붙잡으며 말한다.) 장에 가는 길이면 나랑 같이 가자.
나도 장에서 엄마랑 만나기로 했거든!



당 무: (손 흔들며) 그래! 그럼 로이야, 다음에 보자~!



소 미: (손 흔들며) 잘 가!



로 이: 응! 안녕~!

(당무와 소미가 떠나자 로이가 혼자 남는다.)



로 이: (한숨 쉬며) 휴~ 당무 부럽다...
나는 언제쯤 당무처럼 피부가 깨끗해 질 수 있을까?
분명히 내게 감추고 있는 특별한 비밀이 있는 게 틀림없어!

(로이가 손톱을 입에 물고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한다.)



로 이: 피부가 더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손뼉 치며) 그렇지! 그 특별한 샘물에서 목욕을 더 많이 할수록
피부가 더 좋아지는 걸 거야.
오늘부터는 하루에 3번, 아니 4번씩 목욕을 해야겠어!
그럼 내 피부가 당무보다 더 좋아지겠지?? 히히

제 3막

#01 옹달샘 / 낮
옹달샘에서 목욕하는 로이



로 이: (때타올 들며) 몸에 있는 지저분한 때를 박박 밀어야 피부가 더 좋아지겠지?
(거칠게 때 밀며) 피부야 깨끗해져라~ 룰루~랄라~

(로이가 옹달샘에 몸을 담군 채로 꾸벅꾸벅 잠이 든다.)
(시간 경과) / 밤



로 이: (꾸벅꾸벅 졸다가 번쩍 고개를 들며)
(어두운 하늘 올려다보며) 벌써 밤이 됐잖아!
얼마나 잔 거야...
그래도 이렇게 오래 목욕했으니까 피부가 더 좋아졌겠지?

(옹달샘에서 나온 로이가 허벅지를 잡으며 주저앉는다.)



로 이: 앗, 따가워!!
(울긋불긋한 피부를 보며) 어떡하지?
피부가 전보다 더 빨개졌잖아?!
(울상 지으며) 이상하네... 피부가 더 좋아져야 하는데...
(눈물을 흘리는) 으아앙~! 너무 아파~!

(옹달샘에서 펑! 소리가 나며 샘물 신령이 등장한다.)



샘물 신령: 누가 옹달샘에서 이렇게 시끄럽게 우는 거야?



로 이: (로이가 뒤로 넘어진다.) 어이쿠! 놀래라! 누.. 누구세요?!

나는 네가 매일 목욕하러 오는 이 옹달샘의 신령이지.
대체 무슨 일로 이렇게 울고 있느냐?

(로이가 샘물 신령에게 바싹 엎드린 채 말한다.)



로 이: 샘물 신령님!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목욕을 했는데 피부가 간지럽고 따가워요.
이 샘물은 피부가 좋아지는 특별한 샘물 아닌가요?



샘물 신령: 무슨 소리!
이 샘물은 어디에 가도 있는 평범한 샘물이란다.
피부를 좋아지게 하는 효과는 전혀 없어.



로 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도 안 돼요!
(로이가 신령에게 팔을 보여준다.) 원래 이랬던 제 피부가
여기에서 매일 목욕하니까 깨끗해진걸요?



샘물 신령: (수염 쓰다듬으며) 흐음... 이 옹달샘 물이
특별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지...
그런데 너 같은 아토피피부염은 하루에 한 번씩
매일 목욕하면피부가 좋아지는 것뿐이지,
이 샘물이 특별해서가 아니란다.



로 이: 아토피피부염이요? 그게 뭐예요?



샘물 신령: 아토피피부염은 너처럼 피부가 심하게 가렵거나
건조한 병을 말하지.



로 이: 저는 그런 것도 모르고, 목욕을 많이 하면 더 좋은 줄 알고
하루에 4번씩 와서 목욕한걸요?...



샘물 신령: (호통 치며) 예끼! 그러면 안 돼!
목욕은 하루에 한 번, 15분을 넘지 않는게 좋단다.
목욕을 너무 많이 하거나, 오랜시간 하는건
오히려 피부에 더 좋지 않단다.
그리고 너처럼 때를 밀면 약한 피부에 더 상처를 내서
아토피피부염이 더 심해지지.



로 이: (울상을 지으며) 그래서 내 피부가 이렇게 다시 나빠졌구나...
내가 당무 말만 믿었어도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샘물 신령: 쯧쯧... 욕심을 부린 게로구나.



로 이: 신령님! 제 피부가 다시 좋아질 방법이 있을까요?
(무릎 꿇고, 애원하며) 제발 알려주세요!



샘물 신령: 잘 듣거라.
아토피피부염을 잘 관리하려면 목욕 후에는
꼭 촉촉한 보습제를 바르고, 거칠거칠한 옷보다
부드러운 면으로 된 옷을 입는 게 좋단다.
그리고 손톱과 발톱을 항상 짧게 깎고,
집을 깨끗하게 청소해야 해!
무엇보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잘 관리하여야 하지!



로 이: (주먹을 불끈 쥐며) 앞으로는 신령님 말씀대로 할게요!
많이 하는 것이 꼭 좋은 게 아닌 걸 알았어요.
하루에 꼭 한 번씩만 목욕할게요.

(샘물 신령이 로이에게 보습제를 건넨다.)



샘물 신령: 이걸 받으렴.
네게 주는 선물이다.



로 이: (보습제를 받으며) 이게 뭐예요?



샘물 신령: 보습제란다. 아까 내가 말했듯이 목욕 후에는
보습제를 발라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어야 해.
피부가 건조하면 아토피피부염에 좋지 않거든.
(세 손가락 피며)하루에 3번씩 잊지 말고 꼭 챙겨 바르렴.



로 이: (인사하며) 감사합니다. 신령님!
정말 감사해요!

#02 마을 / 낮

피부가 다시 깨끗해진 로이.
거리에서 당무와 만난다.



로 이: (인사하며) 오랜만이야.



당 무: (감탄하며) 어머~ 날이 갈수록 피부가 좋아지네.
빨갛고 거칠거칠했던 피부는 이제 찾아볼 수가 없어!



로 이: 하하하. 고마워.
너도 그래!



당 무: 역시 그 옹달샘은 특별하다니까?
우리 피부를 깨끗하게 해 주었으니 말이야.



로 이: 당무야. 우리 피부가 좋아진 건 그 옹달샘 때문이 아니야.



당 무: 그게 무슨 소리야?
하지만, 너도 옹달샘 때문에 피부가 좋아졌잖아?!



로 이: 그 옹달샘 물에 특별한 것이 있는 게 아니라,
나나 너처럼 아토피피부염이 있는 사람들은
매일 미지근한 물로 하루에 한 번씩 목욕하고
피부를 촉촉하게 해주는 보습제를 바르면
피부가 좋아질 수 있어.



당 무: 그게 정말이야..?



로 이: 사실 너보다 피부가 더 좋아지려다가
피부가 더 안 좋아지는 바람에 샘물 신령님을 만났어...
(시무룩하게 고개 숙이며) 정말 미안해...

(당무가 축 처진 로이의 어깨를 토닥인다.)



당 무: 무슨 소리야. 나한테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



로 이: 하지만...



당 무: 괜찮대도~!
그런데, 그 옹달샘에 샘물 신령님이 살고 계신단 말이야?!



로 이: 응. 샘물 신령님이 그러셨어.
그 옹달샘 물은 특별한 물이 아니라
다른 평범한 샘물과 똑같다고.



당 무: 피부가 좋아지는 옹달샘이 아니라 그냥 옹달샘이었다니...
(큰 한숨 쉬며) 휴~! 이를 어쩌면 좋지?



로 이: 왜?? 무슨일 있어??



당 무: 어제 장에서 우리처럼 피부가 빨갛고
따가워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피부가 좋아지는 특별한 옹달샘이 있다고 말 했거든...
조금 있으면 그 사람들이 옹달샘으로 갈 거야.



로 이: 그랬구나, 걱정하지마! 오히려 잘 됐다~!
그럼, 우리가 신령님이 알려주신 피부 관리 방법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자!
그럼 모두 우리처럼 피부가 좋아질 거야!



당 무: 정말 좋은 생각이야!
그런데 목욕하고 보습제 바르는 것 말고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



로 이: 응! 신령님께서 아토피피부염을 관리법을 알려주셨어!
손톱과 발톱을 짧게 깎고,
거칠거칠한 옷보다 부드러운 옷을 입어야 돼!
그리고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게 중요하지!



당 무: 우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야!
사람들 오기 전에 얼른 준비하러 가자!



로 이: 좋아! 하하하!

(로이와 당무가 무대에서 퇴장한다.)

부록

캐릭터 머리띠를 사용하여 연극을 진행할 수 있어요.
점선을 따라 가위로 오리고 끈을 달아 머리띠를 만들어보세요.



피부가 좋아진 로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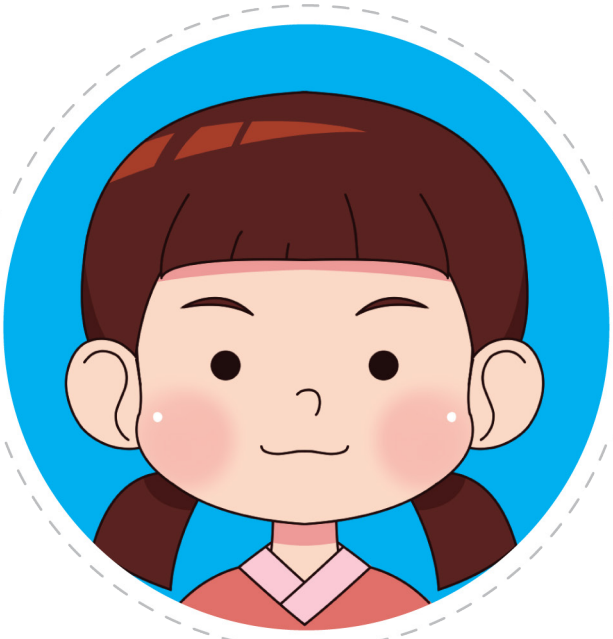
피부가 나빠진 로이



피부가 좋아진 당무



피부가 나빠진 당무



소미



샘물신령